

Top of Winter sports

KOREA SKATING UNION

Vol.3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식지



스포테인먼트를 적용한 새로운 빙상경기 관전문화 창출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박진감 넘치는 대회 그 이상의 즐거움을 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대회기간 중에 마련되었다. 2월에 먼저 진행된 스피드 세계선수권 대회 중에는 전통악기 공연, 전문 MC가 진행하는 드론과 전광판을 활용한 이벤트, 응원부채 만들기, 대회 이미지를 배경으로 즉석사진 촬영까지 경기장 내외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쇼트트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부스가 마련되었으며, 푸드트럭도 설치되었다. 대회 개막식에 앞서서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공연과 치어리더와 함께 하는 응원타임을 마련해 관중들의 흥을 돋구기도 했다. 입장티켓이 매진되는 등 경기장을 찾은 수많은 관중들도 적극적으로 호응 하며 경기장은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온 국민이 빙상에 애정을 갖는 그날까지 #♡SKATING#



빙상이 겨울 또는 국제대회 때 잠시 관심을 받는 종목이 아닌, 사시사철 관심과 사랑을 받는 종목이 되기 위한 #♡SKATING# 캠페인이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개막에 맞춰 시작되었다. 대회 기간 중 관중과 함께하는 대형통천 전개와 입장객에게 나눠진 배지 등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캠페인을 알렸으며, 앞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추진할 다양한 홍보활동에 #♡SKATING#이 접목될 예정이다.

인사말 GREETING



빙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즌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맡은 바 위치에서 애써주신 덕택에 없이 한 시즌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6월10일 ISU총회에서 집행위원에 당선되어 회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2011년 3월부터 5년여를 회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묵묵히 따라 주신 여러분들 덕택에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빙상연맹 회장으로서 일한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심판, 지도자, 시도 협회, 대의원, 그 외 빙상장을 찾아 주시던 원로님들까지....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ISU 집행위원으로서 한국 빙상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종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연맹 회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빙상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1년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동계올림픽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빙상이 평창을 빛낼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창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저 역시 빙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 6.
김재열 올림

Hot News

대한민국 빙상 발전을 위해 하나된 힘으로!!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던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생활체육을 담당하던 전국 빙상연합회 통합을 결의하기 위한 통합 대의원총회가 3/25일 개최되었다. 통합 대의원총회에서는 양단체의 통합과 통합 단체의 정관을 승인했으며, 기존 위원회 외에 생활체육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통합 단체명은 “대한빙상경기연맹”

양 단체의 통합으로 새롭게 태어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으로의 빙상 인구 확대와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창출을 통해 선진 스포츠로 한국빙상이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2015/16시즌 성적우수선수 포상 수여



2015/16시즌 세계선수권에서 입상한 선수들과 종목별로 지난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최우수 선수 및 신인선수를 포상하고, 피겨 유망주에게 육성지원금을 전달하는 우수선수 시상식이 4월 22일 진행 되었다. 시상식에는 대표팀 의류, 용품 후원사인 헬라코리아의 김진면 대표이사가 참석해 세계선수권 입상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포상 수여 명단

- 1. 세계선수권 시상**

스피드 세계선수권	500m 1위 이상화	매스스타트 1위 이승훈	매스스타트 2위 김보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종합우승 최민정		
피겨 사대륙선수권	여자싱글 4위 박소연		
스피드 주니어 선수권	종합 2위 김민석	종합 3위 박지우	
쇼트트랙 주니어선수권	종합 3위 이유빈		
- 2. 2016 유공자**

최우수 선수	스피드 이승훈	쇼트트랙 최민정	피겨 최다빈
신인	스피드 김태운	쇼트트랙 박지원	피겨 유영
- 3. 피겨 육성지원금**

남녀싱글	이준형 김진서 차준환 최다빈 박소연 유영
아이스댄스	레베카킴/끼릴미노프 민유라/Alexander Gamelin 이호정/감강인
페어스케이팅	지민지/Themistocles Leftheris 김수연/김형태
- 4. 헬라 격려금**

스피드 세계선수권 및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입상선수

| 2015 ~ 16 리뷰 |



2015.10.30~2016.02.14

2015/16시즌 쇼트트랙 월드컵 출전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15/16시즌에 개최된 6개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22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 등 총 5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대표팀 2년차이자 팀 막내인 최민정 선수(서현고)는 계주를 포함해 11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차대회에서는 500m 결승에서 캐나다의 마리안생젤레 선수를 0.02차로 제치며 한국선수로는 12년만에 월드컵 500m 우승을 차지했다.



2015.11.01~2019.10.31

KB금융 쇼트트랙 장기후원 계약

2007년부터 10여년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을 후원해 온 KB금융그룹은 평창올림픽에서의 대표팀의 선전과 한국 쇼트트랙 발전을 위해 4년간의 장기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후원금액도 연간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다. KB금융은 현재 쇼트트랙 외에도 피겨 국가대표팀과 빙상 유망주 대상 개인후원 등 한국 빙상발전을 위한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11.13~2016.01.31

2015/16시즌 스피드 월드컵 출전

이번 시즌 스피드 월드컵에서는 이상화 선수가 500m에서 획득한 4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금메달 5개와 은메달, 동메달 각3개를 획득했다. 특히, 지난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이승훈 선수(대한항공)가 매스스타트 종합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시즌에는 김보름 선수(강원도청)가 1차대회에서 금메달, 박도영 선수(동두천시청)가 3차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략종목으로 매스스타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 되었다.



2015.11.28~2016.01.17

스피드 주니어월드컵 대표팀 선전

스피드 주니어 월드컵 2차 대회에 출전한 주니어월드컵 대표팀은 김민석 선수(평촌고)가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선전했다. 올해 1월에 개최된 3차 대회에서도 박지우 선수가 3관왕에 오르는 등 전체 12개의 금메달 중 6개를 한국 대표팀이 휩쓸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5.12.04~2015.12.06

피겨 회장배 랭킹대회 개최

국가대표를 비롯한 주요 피겨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차준환 선수(휘문중), 최다빈 선수(수리고) 등이 우승을 차지했다. 아울러 2015년 6월 새롭게 팀을 구성한 민유라/Gamelin(아이스댄스)와 김수연/김형태, 지민지/Themistocles(이상페어) 팀이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해 팬들 앞에 선을 보였다.



2015.12.05~2016.04.03

마케팅 서포터즈 1기 운영

SNS를 중심으로 빙상을 홍보하고, 세계선수권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연맹 설립 이래 처음으로 마케팅 서포터즈를 선발해 운영했다. 선발된 30명의 서포터즈들은 국내대회 뿐 아니라 올해 2~3월에 개최된 두개의 세계선수권에 대한 홍보 및 이벤트 기획과 운영을 맡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16.01.01~2016.12.31

잇츠스킨 피겨 대표팀 후원

K뷰티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인 잇츠스킨과 피겨대표팀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부터 피겨 대표팀을 후원하게 된 잇츠스킨은 후원 결정을 기념해 피겨 종합선수권대회 이벤트 경품을 후원해주시기도 하였다.



2016.01.08~01.10

KB금융 코리아 피겨 챔피언십 2016 개최

2016 세계(주니어)선수권 선발전을 겸해 개최된 이번대회에서 남자싱글의 이준형 선수(단국대)가 국내 신기록인 223.72점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싱글에서도 초등학생인 유영 선수(문원초)가 183.75점으로 최연소 우승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012년부터 피겨를 후원하고 있는 KB금융에서 타이틀 후원했으며, 피겨 유망주 지원을 위한 장학금 5천만원을 전달하였다.

| 2015 ~ 16 리뷰 |



2016.01.22

대한빙상경기연맹 페이스북 오픈

연맹 페이스북은 올초 2개의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를 맞아 대회 정보 공유와 참여 이벤트 진행을 시작으로 오픈되었으며, 앞으로 선수나 연맹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facebook

www.facebook.com/KSUrink



2016.02.01~02.26

고병욱, 동계체전 MVP 선정

고병욱 선수(의정부시청)가 제97회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해 5000m, 10000m, 매스스타트, 팀추월 등에서 4관왕에 오르며 빙상종목 선수로는 20년만에 대회 MVP를 차지하였다. 한편 시도별 종합 순위에서는 경기도가 1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서울이 2위, 강원도가 3위에 올랐다.



2016.02.09~02.15

피겨 사대륙선수권 박소연 선수 4위

대만에서 개최된 사대륙선수권대회에는 남녀싱글 각 3명과 아이스댄스 3개팀이 출전했다. 이중 박소연 선수(단국대)는 국제대회 개인 최고기록인 178.92점을 획득하며 4위에 올랐으며, 남자싱글에서는 김진서 선수가 10위(201.43점)에 올랐다.



2016.02.11~02.14

스피드세계종목별선수권 금2개, 은1개 획득

러시아에서 개최된 세계종목별선수권에서 이상화 선수(스포츠포토)가 500m, 이승훈 선수(대한항공)가 매스스타트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김보름 선수(강원도청)도 매스스타트에서 월드컵 1차 대회 우승에 이어 세계종목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평창에서의 메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2016.02.12~02.16

유스올림픽 출전

릴리함메르에서 개최된 2016유스올림픽에 출전한 대표팀은 한국이 획득한 10개의 금메달 중 8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특히, 스피드의 김민석(평촌고), 김민선(서문여고), 박지우 선수(의정부여고)는 나란히 2관왕에 오르며 차세대 유망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016.02.27~02.28

세계스프린트선수권 태릉에서 개최

세계 최고의 단거리 선수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인 한국선수들은 홈 관중의 열렬한 응원 속에 김태운 선수(한국체대)가 5위, 김진수 선수(의정부부시청)가 10위에 오르며 기대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여자부의 박승희(스포츠토토), 김현영(한국체대), 김민선 선수(서문여고)는 각각 21~23위를 차지했다.



2016.03.11~03.13

최민정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2년 연속 우승

스피드 스프린트 선수권에 이어 보름 만에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가 또다시 서울(목동)에서 개최되었다. 여자팀은 최민정 선수(서현고)가 1000m 1위, 1500 2위를 차지하며 지난 대회에 이어 2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릴레이에서도 1위에 오르는 등 최강의 면모를 과시했다.



2016.03.28~04.03

피겨 세계선수권 출전

보스턴에서 개최된 피겨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대표선수들은 비록 입상은 하지 못했으나, 15/16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시리즈 2개 대회에서 연속 동메달을 획득한 후 시니어 무대로 진출한 최다빈 선수(수리고)가 첫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4위에 오르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 2015 ~ 16 리뷰 |

**2016.03.30~04.03****쇼트트랙 대표선발 1,2차전 개최**

세계선수권 종합우승으로 대표팀 선발이 자동 확정된 최민정 선수를 제외하고, 16/17시즌 대표팀 훈련에 합류할 선수 15명(남자 8명, 여자 7명)을 선발하는 대표 선발 1,2차전이 목동에서 진행되었다. 선발전에서는 작년 대회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서이라(화성시청), 여자는 심석희 선수(한국체대)가 1위를 차지했다.

**2016.04.03****노진규 선수를 하늘나라로...**

2011 쇼트트랙세계선수권 우승,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 등 차세대 한국 남자팀 에이스로 꼽히던 노진규 선수가 2년여의 투병끝에 24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6.04.13~05.11****피겨 대표팀 해외지도자 초청 강습회 진행**

유럽선수권에서 1993년 금메달, 2000년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드미트리 코치를 초청해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피겨 기술과 표현력을 지도하는 강습회를 진행했다. 드미트리 코치는 작년에도 후보팀을 대상으로 강습을 진행한 바 있다.

**2016.05.27****대의원 간담회 개최**

각 시도연맹 회장단과 함께 평창올림픽 및 빙상 저변 확대를 위한 추진 사업과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 시도연맹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6 지도자 특별소양교육 진행

바른 선수육성을 위해 전체 빙상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

2016 지도자 특별교육이 빙상 지도자 전체를 대상으로 3회(5/11, 13, 16일)에 걸쳐 용인소재 연수시설에서 진행되었다. 금번 교육은 매년 진행된 강습회 중 소양교육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분리해 1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인성 및 준법관련 외부 전문가의 특강 외에도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조별토의를 진행한 후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과정 마지막에는 '한국 빙상의 선진 스포츠로의 도약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천에 교육에 참가한 지도자 전원이 서명했다.



지도자 대상 프로그램에 이어, 전체 선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6/17시즌 대표팀 입촌

· 입촌식 실시(5/15일)



5월 15일, 16/17시즌 대표선수 입촌식이 태릉 챔피언하우스에서 진행되었다. 입촌식은 최종삼 선수촌장의 인사말, 훈련생활 지침, 각 대표팀 지도자의 훈련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에는 각종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선수들의 서약서 작성 시간이 마련되었다.

종목별 입촌 선수 명단

	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남 자	단거리 김태윤, 김준호, 차민규, 김진수, 하홍선, 장원훈 장거리 주형준, 문현웅, 이해영, 고병욱, 김철민, 서정수	서이라, 박세영, 이정수, 신다운, 한승수, 박윤기, 홍경환, 임경원	이준형, 김진서, 차준환, 변세종
여 자	단거리 장 미, 김민선, 김민조, 김현영, 박승희 장거리 박초원, 박지우, 박도영, 노선영, 임정수	최민정, 심석희, 김지유, 김건희, 이은별, 김혜빈, 노아름, 노도희	최다빈, 임은수, 박소연, 김예림, 변지현, 김하늘, 안소연, 손서현



· 대표팀 워크샵 (6/17~18일)

국가대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대표 워크숍이 올해도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올해 워크숍에서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준법, 인권, 도핑방지, 국가대표 품위유지 교육과 함께 소통관련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준법과 인권 교육은 빙상 선수대상 준법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법무부의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과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강의를 맡아 선수들에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관련 지식을 전달했다. 또한, 선수단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소통 및 매너 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다.



워크숍 1일차 (6/17) 오후에는 대표선수들이 태릉선수촌 인근의 다운증후군 및 지적장애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다운복지관에 방문해 직업교육훈련과 인라인 강습 보조, 복지관의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용 물품정리 등을 실시했다.



평창으로 가는 길

6월로 평창올림픽 개막까지 600여일만을 남기게 되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관련 기관들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강릉에 건설 중인 빙상 경기장들도 서서히 윤곽을 갖춰 가고 있다. 특히 16/17시즌에는 종목별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되어 본격적인 실전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 테스트 이벤트 일정

종 목	일 정	대회명	경기장
쇼트트랙	2016.12.16 ~ 12.18	ISU 4차 월드컵 대회	강릉아이스아레나
스 피 드	2017.02.09 ~ 02.12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강릉스피드오벌
피 겨	2017.02.15 ~ 02.19	사대륙선수권대회	강릉아이스아레나

• 테스트 이벤트 인스펙션 진행

4~5월 중 ISU 주요 관계자들이 입국해, 연맹, 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테스트이벤트를 겸한 3개 국제 대회의 운영준비와 경기장 건설 현황을 점검하는 인스펙션이 진행되었다.



• 경기장 건립 현황

※ 공정율은 2016년 6월 19일 기준



강릉 스피드 오벌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아이스아레나 (쇼트트랙, 피겨)

최선의 순간이 모이면 최고의 시간이 된다.

태릉선수촌장 **최종삼**



저는 선수, 지도자, 교육자, 그리고 지금은 체육 행정가로 그렇게 평생을 체육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체육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찬 인생이었으며, 열정만큼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올해로 태릉선수촌장으로 부임해 세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리우 올림픽으로 여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점을 넘어서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요즘 매일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항상 “최선”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는 만큼 작은 순간 순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순간 순간이 비록 메달이라는 결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돌아 봤을 때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빙상은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발전의 기반이다”

2011년 지구 반대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평창이 2018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었을 때 느꼈던 감동과 환희는 올림픽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지금은 무거운 책임감과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겨울이 짧은 우리나라가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뭐라해도 빙상 종목의 힘이 큼니다.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김윤만 선수가 동계올림픽 첫 메달을 획득한 이후 2014 소치 올림픽까지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은

모두 빙상 종목에서 나왔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동-하계 스포츠 TOP 10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을 보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TOP 10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보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제가 느끼는 자부심을 빙상 선수들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력을 넘어 인성을 갖춘 선수가 되자”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빙상 국가대표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결실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초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력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걸 맞는 인성을 갖춰주기를 바란다는 것과 은퇴 후의 제2의 인생을 위해 바쁘지만 항상 자기 개발에도 힘써 미래를 준비하라고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 소통, 함께하는 빙상

대한빙상경기연맹
마케팅서포터즈 1기 정은영



왼쪽에서 두번째가 정은영 서포터즈

빙상종목이 국제대회에서 거둔 우수한 성적은 대한민국의 밤잠을 설치게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빙상의 좋은 모습에 국민들의 기대감은 커져갔고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선수들의 노력 그리고 그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연맹 관계자들의 모습은 결코 당연함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활동한 2015/16시즌은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각종 화제를 몰고 온 피겨대회를 통해, 다가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빙상 스타들의 출현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차가운 빙판위에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한 오늘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짜릿함과 감동도 선사하였습니다.

또한, 15/16시즌을 통해 빙상은 '보는 스포츠'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거듭났습니다. 연맹과 서포터즈가 시작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 활동은 공식홈페이지 외에 빙상에 대한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고, 소통을 가능케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는 경기자체의 볼거리와 더불어 프로 스포츠 못지않은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한 팬들로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는 전 좌석 매진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서포터즈 단원들을 살갑게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 서포터즈 30명 전체를 대신하여 회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장차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대학생들에게 훌륭한 배움과 경험의 장이었으며, 잊지 못할 청춘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발전을 지켜보겠으며, 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 과장 김윤만



한국 빙상선수가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일본제국 주주의 식민통치 기간(1910~1945)인 1936년 2월 6일 독일 바이에른주() 남부 관광·휴양도시인 가르미슈파르텐 키르헨에서 개막한 제4회 동계올림픽 대회입니다. 최초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참가한 선배들은 역사의 비극으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 조국없는 비참함과 통탄의 한을 품고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일본국적으로 대회에 참가했을 것입니다.

그 후 빙상 후배들은 열정과 도전으로 1992년 제16회 알베르빌 올림픽 쇼트트랙에서의 첫 금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2014년 제22회 소치올림픽까지 금메달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빙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원로 선배님들의 업적을 이어 나갔습니다.

2011년 7월 제123차 IOC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안시, 독일의 뮌헨을 제치고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한국에서 두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하계·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3회째가 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25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평창 개막까지 남은 1년 9개월 동안 빙상후배들

은 국제무대에서 선배들이 이룩한 성과를 교훈삼아 위풍당당하고 공명정대한 스포츠 정신으로 올림픽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동계스포츠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빙상종목 발전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폭행, 음주, 도박’등 빙상인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스포츠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깊은 성찰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빙상종목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국민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종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분들께“100세 시대”를 맞아 후배들이 은퇴 후의 제2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관심분야나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라며, 후배들은 어떠한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는 스포츠인의 도전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 “빙상”

빙상 종목이 누구나 즐기는 생활속의 스포츠로 국민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생활체육 사업을 소개합니다.

동호인 대회



• 동계생활체육대축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종목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4개 종목의 동호인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5년 대회에는 빙상종목에만 33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대회기간 중 피겨 선수를 초청해 갈라쇼를 펼치는 등 선수 뿐 아니라 관중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 대한체육회장배 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는 참가단체별로 시상하는 대회로 초·중·고등부 등 부별 참가단체시상과 각 부별성적을 합산한 시도별 시상을 실시 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장배 대회는 순수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 외국인도 참가 가능하다.

강습회



• 행복나눔 빙상교실

전국에있는소외계층청소년을대상으로스케이트를배울수있는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600명의 신청자를 받아 5월 말부터 연말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 동계스포츠 보급 강습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보자뿐 아니라 중급자까지 수준별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생활체육으로 빙상을 보다 쉽고 부담없이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스타와 함께하는 빙상캠프

수강 아동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참가해, 1박2일동안 전·현직 국가 대표선수와 함께하는 펜사인화와 강습회 운영, 지역문화체험활동 등을 진행한다.

간추린 소식

연맹로고 특허등록 완료



2015년 11월에 론칭한 연맹의 새로운 로고의 상표권 등록이 2016년 3월 마무리 되었다. 향후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용 될 연맹 로고는 발생 가능한 각종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KB금융 피겨 유망주 장학금 전달



KB금융그룹은 4/8일 피겨 유망주 1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장학금은 KB금융 피겨 코리아 챔피언십 2016(종합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명 선수를 비롯해 중학생 이하 유망주 10명에게 전달되었다.

선수등록시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4/25~5/31일간 진행된 2016/17시즌 선수등록부터는 선수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이 가능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연맹은 선수들이 가입하는 개인보험 외에도 합숙 훈련 등을 진행할때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부 참가 인원이 많은 주요대회는 별도의 행사책임보험도 가입하고 있다.

전북연맹 한중교류전



전북빙상경기연맹(회장 최문옥)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중 쇼트트랙 친선교류를 진행했다. 전북 선수단과 하얼빈 선수단은 합동 훈련과 친선경기를 진행하며 상호 경기력 발전과 우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빙상대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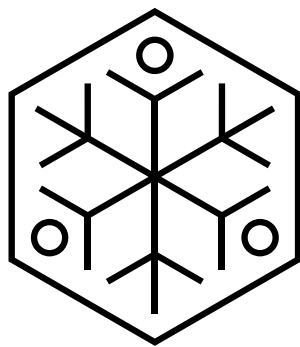


4/20~22일 고양에서 지적장애우를 대상으로 개최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빙상대회에 빙상 전임심판 등이 대회 심판 및 운영인력 등으로 참여해 대회 진행을 지원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사무처 워크숍 개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20~21일간 연맹 임원 및 사무처 직원이 참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행정업무 개선 및 선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워크숍 중에 논의된 내용은 즉시 업무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우편물 수령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신 분(또는 예정이신 분)은 아래의 연맹 사무국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소식지는 연맹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06호 • Tel_02.2203.2018 • Fax_02.423.8097 • www.skating.or.kr

후원사

FILA

SK telecom

KB 금융그룹

삼보모터스(주)
SAMBOMOTORS CO., LTD.

It'S SKIN

SAMSUNG
삼성화재

지정병원

슬병원
SK SKIN CARE CENTER